

# 마포구, 나무심기 10개년 마스터플랜 공개 “2027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 심어 공기청정숲 조성”

나무심기 예산 1580억 투입  
미세먼지 줄이고 도심 온도↓  
“숲 조성의 모범사례 되겠다”  
4개 분야 나눠 프로젝트 추진

서울 마포구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 시내 전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음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3번째로 높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농도일 정도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미세먼지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됐다”며 “500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온도를 낮춰 마포구를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마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는 2014~2017년에 식재한 57만 9000그루를 포함해 2022년까지 181만 그루, 2027년까지 261만1000그루 등 총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다. 이번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1580억원이다.

구는 500만 그루 나무로 노후 경유차 1만600여대가 1년간 내뿜는 양의 미세

먼지를 줄이고 15평형 에어컨 400만대를 5시간 가동한 수준으로 도심온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나무 식재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의 '2014~2017년 수목 식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는 강서구에 이어 서울에

서 두 번째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자치구다. 강서구가 112만659그루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57만8540그루, 동대문구 53만5729그루, 동작구 52만 6817그루 순이었다.

마포구는 서울에서 2번째로 나무가 많은 지역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상위권 수준이다. '2013~2017년 서울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보면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금천구가 26.7 $\mu\text{g}/\text{m}^3$  로 가장 높았다. 관악구(26.5 $\mu\text{g}/\text{m}^3$ ), 마포구(26.3 $\mu\text{g}/\text{m}^3$ ), 양천구(25.8 $\mu\text{g}/\text{m}^3$ ), 강남구(25.7 $\mu\text{g}/\text{m}^3$ )가 뒤를 이었다.

구는 “도시숲이 단순히 녹지나 휴식처가 아닌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해법이 되도록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 고민하고 식재공간을 확보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을 선택 식재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는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사업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민간분야 나무심기 등 4개 분야로 나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공원, 하천변, 철도변 등 대규모 유휴부지와 도로변 한 뼨 땅까지 구내 숨은 땅을 찾아 나무를 심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마포구의 1인당 공원 녹지율은 기존 13.73 $\text{m}^2$ 에서 16.26 $\text{m}^2$ 로 늘어난다.

아울러 구는 미세먼지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옥상, 통학로에 벽면녹화를 실시하고 띠 녹지를 조성한다. 서울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절실해지는 시대라며 “나무 500만그루 심기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숲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명절 中 中企 자금난 해소에 300억 펀다 서울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7곳’ 에어컨설치

은행금리보다 1% 낮게 이용  
업체당 5억이내 1년 만기 상환

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수혜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1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지급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8월 26일부터는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천억 확대,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지 12곳 선정

3년간 사업비 10억 지원

서울시가 올해 골목길재생사업지 12 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에 향후 3년간 골목길 재생 마중물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사업지는 ▲종로구 관동동 일대 ▲용산구 소월로 40·44길 ▲성동구 송정동 일대 ▲광진구 자양4동 뚝섬로30길 ▲중랑구 묵동 일대 ▲강북구 수유동 일대 ▲도봉구 창3동 일대 ▲마포구 망원1동 월드컵로19길 일대 ▲양천구 목4동 일대 ▲강서구 화곡8동 일대 ▲구로구 고척로3길~경인로15길 일대 ▲관악구 난곡로15길 일대 등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길이 1km 내의,

폭 4m 미만의 주거 지역 골목길이나 폭 8~10m의 골목상권, 보행 중심 골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은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 수립과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 8억원은 골목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성동구 송정동은 ‘우리동네 실효실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1골목 1 브랜드 골목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 고척로3길~경인로15길의 경우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공원을 정비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경기도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도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여객터미널 5개소(부천, 용인, 여주, 이천, 안성), 백화점 4개소(성남, 구리, 수원, 의정부), 대형할인매장 6개소(안산, 의왕, 시흥, 고양, 광명, 용인)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 서울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7곳’ 에어컨설치

석 달 만에 에어컨 설치율 10%p 상승

지난 3개월 새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10%p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73%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 홍보 활동과 설득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석 달 만에 에어컨 설치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당시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다.

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의무관리 대상단지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2000여 단지(1만6000여동)에 배포했다. 옥외전광판, 시민계시관, 지하철 계시관 등 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현정 기자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홍보 포스터, 서울시

시는 7월 15~19일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를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10실)에서 7월 38.5%(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이(816실) 증가한 셈이다. 단지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한 곳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교체 100억 지원

교체 보조금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체 보조금을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연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주의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시에 있는 건물이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요청하면 설치 확인 후 바로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후보조금 16만원을 받은 주민에게는 차액 4만원을 9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